“내 생각엔 춤보다는 인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상이요?”

“응. 영상 보면 이 사람은 화장을 되게 진하게 했잖아? 그래서 짓는 표정도 강렬해 보이고.”

진한 아이 섀도우에 어두운 색깔의 립스틱. 아이돌이 눈을 번뜩이는 것만으로도 사나운 느낌이 든다.

“춤을 볼 때는, 그 사람 표정도 보게 되니까. 강한 인상이 춤에도 전해진 거지.”

“오오...”

“그래서 네가 췄을 때는 저 느낌과는 달랐던 게 아닐까 싶은데.”

“듣고 보니까 선배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채아람이 영상에 나오는 아이돌의 얼굴을 골똘히 쳐다봤다.

“선배. 그러면 저도 요렇게 화장하면 여기 아이돌 같은 느낌이 나겠죠?”

“......”

아이돌의 맹수 같은 눈빛이 화면에서 반짝인다. 시선 너머로 사나운 느낌이 전해져온다. 마치 표범처럼.

“어때요? 이러면 약간 비슷하죠?”

아이돌을 따라 하며 미간을 찌푸린 채아람의 눈동자엔 사나운 느낌이라곤 전혀 없다.

그냥…. 살짝 바보 같다.

여기에 진하게 화장을 해봤자, 그냥 화장 진한 채아람이잖아.

“네가 저렇게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

“네!? 아깐 느낌 다른 게 인상 때문이라면서요!”

“인상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애초에 표범 같은 얼굴이잖아. 화장은 그걸 더 드러낸 거고.”

“표범 같다구요? 이 사람이 표범이면 저는 어떤 얼굴인데요?”

“…말 지지리 안 듣는 강아지?”

말이 끝나자마자, 채아람이 나를 꼬집었다.

“아야!? 왜 꼬집어!”

“강아지도 화나면 무니까요!”

채아람이 으르릉거리면서 손가락을 쫙쫙 폈다.

“흥. 선배 말은 알겠어요. 제가 이 춤이랑 안 어울린단 거죠? 안 그래도 다른 춤 연습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채아람이 일부러 티 내면서 고개를 휙 돌려버렸다.

“다른 춤? 왜?”

“선배 말대로 안 어울려서요~ 안 어울리면 별로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

며칠 전, 학생회 활동을 끝나고 돌아갈 때, 채아람의 연습을 봤던 일이 떠올랐다.

항상 장난치던 채아람이 진지하게 춤에 몰입하던 모습.

내가 알던 채아람과 전혀 달라서 그랬는지, 그 모습이 내겐 더 멋있게 느껴졌다.

“...그래요?”

“응. 반전 매력이라고도 하잖아. 저 느낌을 따라 하지 말고, 달라도 괜찮으니까 너대로 해보는 게 어때?”

“음...”

채아람은 살짝 고민하다 수줍게 볼을 긁적였다.

“히히. 그러면 선배 말대로 연습해볼게요!”

“응. 근데 난 춤은 잘 모르니까 참고용으로만 들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선배 말대로 의외로 도움 될 수도 있잖아요?”

고민을 털어놔서인지 채아람이 아까보다 밝게 웃었다.

“그런데요, 선배. 춤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밝게 웃던 채아람의 미소에 사악함이 한 스푼 더해졌다.

“근데 춤도 잘 모르면서…. 저 춤 연습하던 건 왜 끝까지 다 본 거예요?”

“...어우. 겨울이라 춥네? 먼저 들어가 볼게.”

“아, 마침 저도 추워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재빨리 도망가려던 내 뒤에 채아람이 따라붙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 밤도 추웠죠? 추운데도 계속 볼 만큼 멋있었어요?”

“......”

“부끄러워하지 말고 얘기해보세요~”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오며 괴롭히는 채아람을 떼어낼 때쯤엔.

하도 걸어서 몸이 뜨끈뜨끈했다.

...얼굴도 빨개진 건 덤이고.